

② 자사도입으로 어떠한 경영개선이 가능한가?

③ 컴퓨터 요원의 확보와 체제는 가능한가?

등을 들 수 있다.

계산센터에 위탁한다 해도, 대규모이외의 센터에서는 일반업무의 소프트웨어에는 분

제가 없으나, POS데이터의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한국유통코드센터나 가공분석업체 및 기기공급업체에서 POS데이터의 집계·가공등의 분석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곳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Ⅲ. 운영시의 체제

POS도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성패를 쥐고 있는 것은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관리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많은 부서가 관련하는 시스템만큼 설령 단하나의 부서에서라도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운영이 어렵게 된다. 상품검수후에 그 상품이 상품마스터파일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품을 하면 체크아웃시점에서는 스캐닝(Scanning)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다. ECR과 달리 운영내용 그자체가 새로운 것임과 동시에 관련하는 영역이 넓기때문에 그 운영체제와 관리는 극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실제로 가동해보면 계획단계에서는 예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여 운영 일부분을 수정·변경할 경우도 생길수 있다. 따라서 도입당초 1개월정도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임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적합한 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도입위원회나 분과회에서 상의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기메이커에게도 참가해달라고 하여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POS시스템은 어떤 면에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도입기업의 대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지만 문제점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해결에 유의해야 한다.